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찾아가는 고용노동정책 설명회'개최

신광수 기자 | 승인 2026.05.13 13:39

고용·노동·산재 분야별 주요 고용노동정책 소개, 구직자 발굴 등 협력 강화



찾아가는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후 기념촬영 모습.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보령시 주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2일 주산면 이장협의회(협의회장 이창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주산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26명이 참석했고, 보령고용노동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했다.

보령고용센터는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발굴해 구인기업과 연결하는 자체 특화 사업인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설명했고, 지역협력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노동기준조사·감독과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감독 강화를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제도를, 산재예방감독과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지역의 지붕·태양광 공사, 축산농가 등 소규모 현장의 추락·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주산면 이장협의회는 지역의 미취업 구직자 발굴, 노동약자 보호와 임금체불 예방, 소규모 현장의 산재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달 29일 보령시 등 관내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맞춤형 고용노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관내 5개 지자체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와 함께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김주홍 보령지청장은“앞으로 관내 이통장협의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주민들의 고용노동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고용노동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광수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보령시 주산면 이장협의 회 대상 '찾아가는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 이승호 기자 | ⓒ 승인 2026.05.12 19:00

고용·노동·산재 분야별 '26년 주요 고용노동정책 소개, 구직자 발굴 등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보령시 주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2일 주산면 이장협의회(협의 회장 이창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주산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26명이 참석하였고, 보령고용노동지청은 고용센터, 노동 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보령고용센터는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발굴하여 구인기업과 연결하는 자체 특화사업인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설명하였고,



지역협력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노동기준조사·감독과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감독 강화를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제도를, 산재예방감독과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지역의 지붕·태양광 공사, 축산농가 등 소규모 현장의 추락·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주산면 이장협의회는 지역의 미취업 구직자 발굴, 노동약자 보호와 임금체불 예방, 소규모 현장의 산재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달 29일 보령시 등 관내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맞춤형 고용노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향후 관내 5개 지자체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와 함께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승호 기자 ceobgnews@naver.com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보령시 주산면 이장협의 회 대상 '찾아가는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 이성필 기자 | ⓒ 승인 2026.05.12 18:08

고용·노동·산재 분야별 '26년 주요 고용노동정책 소개, 구직자 발굴 등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보령시 주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2일 주산면 이장협의회(협의회장 이창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주산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26명이 참석하였고, 보령고용노동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보령고용센터는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발굴하여 구인기업과 연결하는 자체 특화사업인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설명하였고,

지역협력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노동기준조사.감독과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감독 강화를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제도를, 산재예방감독과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지역의 지붕·태양광 공사, 축산농가 등 소규모 현장의 추락.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주산면 이장협의회는 지역의 미취업 구직자 발굴, 노동약자 보호와 임금체불 예방, 소규모 현장의 산재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달 29일 보령시 등 관내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맞춤형 고용노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향후 관내 5개 지자체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와 함께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김주홍 보령지청장은 "앞으로 관내 이통장협의회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용노동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고용노동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보령시 주산면 이장협의회 대상 '찾아가는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산재 분야별 2026년 주요 고용노동정책 소개, 구직자 발굴 등 협력 강화

기사입력시간 : 2026/05/13 [09:02:00]

대전신문



▲ 찾아가는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장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보령시 주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2일 주산면 이장협의회(협의회장 이창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주산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26명이 참석했고, 보령고용노동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했다.

보령고용센터는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발굴해 구인기업과 연결하는 자체 특화사업인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설명했고, 지역협력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노동기준조사·감독과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감독 강화를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 제도를, 산재예방감독과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의 지역의 지붕·태양광 공사, 축산농가 등 소규모 현장의 추락·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 찾아가는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장면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주산면 이장협의회는 지역의 미취업 구직자 발굴, 노동약자 보호와 임금체불 예방, 소규모 현장의 산재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달 29일 보령시 등 관내 5개 시·군 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과 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맞춤형 고용노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관내 5개 지자체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와 함께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기로 협의했다.

김주홍 보령지청장은 “앞으로 관내 이·통장협의회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용노동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고용노동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보령시 주산면 이장협의회 대상 ‘찾아가는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산재 분야별 '26년 주요 고용노동정책 소개, 구직자 발굴 등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보령시 주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2일 주 산면 이장협의회(협의회장 이창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주산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26명이 참석하였고, 보령고용노동 지청은 고용센터, 노동기준·감독,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올해 주요 업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보령고용센터는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발굴하여 구인기업과 연결하는 자체 특화사업인 ‘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설명하였고,


지역협력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노동기준조사·감독과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감독 강화를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제도를, 산재예방감독과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지역의 지붕·태양광 공사, 축산농가 등 소규모 현장의 추락·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주산면 이장협의회는 지역의 미취업 구직자 발굴, 노동약자 보호와 임금체불 예방, 소규모 현장의 산재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달 29일 보령시 등 관내 5개 시·군지역 이통장연합회 지회장과 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맞춤형 고용노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향후 관내 5개 지자체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와 함께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취재 : 서준수 기자 기사입력 : 26-05-12 21:22

서준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dsn8272@naver.com

Copyright ©2022 대천광장신문. All rights reserved.

대천광장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 안전지킴이' 포럼 개최...보령 이장단 안전 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송병배 | 승인 2026.05.13 14:29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농촌 안전문화 확산 위해 맞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가 협력해 보령지역 이장단을 대상으로 '마을안전지킴이 포럼'을 주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3일 진행됐다.

마을안전지킴이는 행정과 지역 주민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마을 내 소규모 공사 현장이나 농업 중 발생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수칙 전파에 힘쓰는 지역 밀착형 조직이다.

포럼에서는 지붕 및 태양광 공사, 축산 농가 작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고 사례와 그 예방 방법을 상세히 공유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마을안전지킴이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공단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기술 지도를 제공하고, 안전모 등 각종 산업재해 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심우섭 본부장은 “농촌 지역은 소규모 공사와 축산 관련 작업에서 안전 관리가 취약해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마을 단위 안전 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보령지역 이장단의 안전 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줄이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병배 song4243@hanmail.net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마을안전지킴이 포럼

☎ 한권수 기자 | ⌚ 승인 2026.05.13 15:38

충남 보령지역 이장단 대상



▲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제공

[충청타임즈]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KOSHA)가 보령지역 이장단을 대상으로 '마을안전지킴이 포럼'을 실시했다.

마을안전지킴이는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밀착형 가교로서, 마을 내 소규모 공사 및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안전수칙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포럼에서는 지붕·태양광 공사 및 축산농가 작업 관련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수칙을 공유하고, 농촌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안전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단은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모 등 산업재해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우섭 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은 "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 공사나 축사 작업 등에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며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보공단 대전세종본부, 보령서 '마을안전지킴이' 포럼 전개

✎ 김현수 기자 | ⌚ 승인 2026.05.13 16:05

농촌지역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
지붕·태양광 공사 등 주요 사고사례 공유
현장 기술지도·예방물품 지원 추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가 주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보령지역 이장단을 대상으로 개최한 '마을안전지킴이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최근 주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보령지역 이장단을 대상으로 '마을안전지킴이 포럼'을 전개했다.

이번 포럼은 농촌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마을안전지킴이의 역할과 현장 중심 재해예방 활동 방안 등을 공유했다.

마을안전지킴이는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밀착형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 내 소규모 공사와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안전수칙 확산 활동에 나선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붕·태양광 공사와 축산농가 작업 관련 주요 사고사례 및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은 마을안전지킴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모 등 산업재해 예방물품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심우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은 "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 공사나 축사 작업 등에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마을 단위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tims@hanmail.net